

# 漢代까지의 종기·혹·덩어리에 對한 疾病認識 考察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u 통합암센터 한방내과<sup>1</sup>  
엄석기<sup>1</sup> \*

## Disease Recognition of Tumor, Bump or Mass until Han Dynasty

Eom Seok-ki<sup>1</sup> \*

<sup>1</sup>M·u Integrative Cancer Center, East-West Neo Medical Center, Kyunghee University

After reviewing literatures of Han dynasty or earlier that recognize tumor, bump or mass, we concluded as follows.

The recognition or study on tumor, bump or mass started at least Seou(西周) Dynasty or earlier, and academic system was developed since earlier Han Dynasty(漢代). Until Han Dynasty, main characters that recognize Tumor, bump or mass include Jong(腫), Yang(瘍), Yu(瘤), Yeong(癭), Chang(瘡), Ong(癰), Jeo(疽), Jeok(積), Chwi(聚), Byeok(癖), Jing(癥), and Ga(瘕). Hyeon(核) that firstly appeared 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南北朝), and Am(癌) that firstly appeared in Song Dynasty[宋代] can also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characters. The main perception of cancer(腫瘍) until Han Dynasty was started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word Yu(瘤) and developed through visual, tactile sensation and symptom observation of following 2 categories. One is tumor, bump or mass which is expressed in outer body like Yeong(癭), Jong(腫), Chang(瘡), Yang(瘍), Ong(癰), and Jeo(疽). The other is tumor, bump or mass which is expressed internally like Jeok(積), Chwi(聚), Byeok(癖), Jing(癥), and Ga(瘕).

**Key Words** : tumor, bump, mass, cancer

## I. 序 論

현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腫瘍’이란 용어는 ‘양성종양 혹은 악성종양’을 의미하며,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腫瘤’란 용어와 동일한 개념이다. 현대의 腫瘍

혹은 腫瘤란 용어는 의학계에서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을 구별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약 60-70년 전 이래로 형성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종기·혹·덩어리 등에 대한 질병인식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종양 개념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腫瘍이 “첫째, 외과병의 일종으로서의 종양, 둘째 無名腫毒의 異名으로서의 종양, 셋째 瘡瘍 초기에 아직 끊지 않았거나 끊어도 혈지 않은 온갖 증상으로서의 종양, 넷째 몸의 이상조직이 증식된 악성종양이나 혹은 양성종양으로서의 종양

\* 교신저자 : 엄석기,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u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겸  
임교수, 02-440-6254.

E-mail: sku0808@hanmail.net

접수일(2008년 4월 25일), 수정일(2008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2008년 5월 16일)

등 네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sup>1)</sup>하며, 시각 및 촉각에 의해 관찰 가능한 체표의 덩어리<sup>2)</sup>에 대한 ‘癰 癰瘡 腫瘍 癰疽 癰疽 積聚 癰癢 癰癢’ 등과 관련한 병증, 중기·덩어리·혹으로 인한 관련 증후를 포괄하여 설명한 ‘反胃 噎膈 崩漏 帶下 ……」 등의 범주를 포함하는 많은 문자와 병명 등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과 촉진에 의한 현상적 실체로 인식하였던 ‘癰 癰瘡 腫瘍 癰疽 積聚 癰癢 癰癢’ 등의 文字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의학 중앙 연구의 지평을 밝혀줄 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선 漢代까지의 중기·혹·덩어리에 관련한 각종 文字의 질병인식 범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漢代까지의 중앙에 대한 질병 인식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 II. 本論 및 考察

『周禮·天官冢宰·醫師』 중의 “나라에 질병이 있거나 머리나 몸에 중기가 있는 자가 있으면 의원에게 분담하여 병을 다스리게 한다(凡邦之有疾病者 疔瘍者 造焉 則使醫 分而治之)<sup>3)</sup>”라는 문장의 ‘疔瘍’을 통하여, 이미 西周時代(BC 11~7C)에 중기 혹은 부스럼에 대한 질병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天官冢宰·瘍醫』 중의 “瘍醫는 腫瘍 潰瘍 金瘍 折瘍 등의 부스럼을 짜고 찌는 것을 관장하였다(瘍醫 掌腫瘍 潰瘍 金瘍 折瘍之祝藥 剮殺之齊)<sup>4)</sup>”를 통하여 중기 혹은 부스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腫瘍이란 병명은 『天官冢宰·瘍醫』 중에 최초로 나타나는데, 중앙의 의미에 대하여 鄭玄(後漢, 127~200)의 「注」에서는 “癰으로써 부스럼이 위에 생긴것

을 말한다(腫瘍 癰而上生創者)<sup>5)</sup>”라고 하였으며 孔穎達(唐, 574~648)의 『疏』에서는 “옹으로써 솟아오른 부위가 상처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腫瘍謂癰而頭未潰者)<sup>6)</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앙이 곧 솟아오른 중기 혹은 부스럼으로 癰과 같은 개념이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殷墟(BC 17~12C)의 갑골문에 ‘癰<sup>7)</sup>’라고 하는 혹 또는 덩어리라는 질병인식에 관련한 용어가 나타나고, 『山海經』에 질병의 특징에 의해 고정된 병명으로 사용한 ‘癰 癰瘡 癰疽 腫<sup>8)</sup>’ 등의 덩어리·혹·중기와 관련한 병명이 나타나며, 『詩經』에 ‘浮腫<sup>9)</sup>’이 나타나며, 『黃帝內經』에 ‘石癰 腸覃 石瘕 積聚 癰癢 噎膈 反胃……’<sup>10)</sup> 등의 病名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덩어리·혹·중기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적어도 서주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한시기부터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고)

이후 중앙에 대한 연구는 後漢代의 『難經』에서 積을 五積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의서의 瘡瘍 癰疽 積聚 癰癢 등의 범주 혹은 중앙과 유관한 관련 증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兩漢代까지의 덩어리·혹·중기와 관련한 질병인식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중요 문자는 ‘腫瘍 癰瘡 癰疽 積聚 癰癢 癰癢’ 등이며, 남북조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瘰’과 宋代에 처음 나타난 ‘癧’ 등을 중요 문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각 문자의 질병인식 범주를 爾雅·說文解字·釋名·玉篇 등의 남북조시대까지의 訓詁學 서적을 위주로 한 후 후대의 字典 및 醫學書籍 등의 내용을 참고로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13.  
2) 이러한 설명 방법은 박종현·신상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박종현, 신상우. 한의학의 중앙에 대한 인식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5).)  
3) 池載熙 李俊寧 解譯. 周禮. 서울. 자유문고. 2002. p.66.  
4) 池載熙 李俊寧 解譯. 周禮. 서울. 자유문고. 2002. p.70.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2.  
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2.  
7) 최승훈 저. 동의중앙학. 서울. 행림출판. 1993. p.19.  
8)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차웅석, 김홍균, 이병욱, 김용진, 박현국, 신영일, 김훈 외 6인. 강좌중국의학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45.  
9)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차웅석, 김홍균, 이병욱, 김용진, 박현국, 신영일, 김훈 외 6인. 강좌중국의학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45.  
10) 문구, 정병학, 김병주 편저. 암 동서의 결합치료(1).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9. p.3.

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殷	甲骨文	癰(癰)
前漢 以前	周禮	腫瘍 腫瘍 潰瘍 金瘍 折瘍
	詩經	浮腫
	爾雅	癭
	山海經	腫 癭 癰疽 瘰
	呂氏春秋	疽
	韓非子	疽
前漢	五十二病方	癰疽
	史記	癰瘰
後漢	漢書·藝文志	金創
	黃帝內經	石癰 腸覃 石瘰 積聚 癰瘰 瘰 反胃 腫瘍 癰瘰 瘰疽 積聚 癰瘰 瘰
	說文解字	腫瘍 癰瘰 瘰疽 瘰
	釋名	腫 癰瘰 瘰瘰
	論衡	腫
南北朝	玉篇	癰 瘰 瘰 癰瘰 瘰
唐	一切經音義	癰
宋	集韻	瘍 瘰 瘰 癰瘰
宋	廣韻	瘍 癰
元	韻會	瘰
明	正字通	癰 瘰 瘰

표 1. 신체의 중기·덩어리·혹에 관한 다양한 인식

1) 癰(本字는 癰)

殷墟(BC 17~12C)의 갑골문에 ‘癰’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타난다. 『說文解字』에서는 “癰 腫也<sup>11)</sup>”라 하였으며, 『釋名·釋疾病』에서는 “癰 流也 血流聚所生癰腫也<sup>12)</sup>”라 하였고, 『玉篇』에서는 “癰 瘰肉也<sup>13)</sup>”, 「正字通」에서는 “癰 俗作癰<sup>14)</sup>”, 『廣韻』에서는 “癰 肉起疾也<sup>15)</sup>”라 하였는데, 이로 보아 癰는 적어도 서주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몸이 붓거나 혹은 몸에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음

을 알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중에 “已有所結 氣歸之 津液留之 邪氣中之 凝結日以易甚 連以聚居 爲昔癰 以手按之堅 (이미 결체된 곳이 있으면 위기는 거기로 집결하여 진액도 거기에 머무르니 사기가 거기에 적중되면 응결하여 나날이 심하게 변하고 계속 모여들어 석류증을 일으키는데 손으로써 이를 누르면 견고하다)<sup>16)</sup>”라고 하여 癰와 관련한 병증설명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宋代의 陳言은 『三因極一病證方論』 제15권 癰瘰證治에서 癰에 대하여 “夫血氣凝滯 結癰瘰者 雖與癰疽不同 所因一也 癰多着于肩項 瘰則隨氣凝結 此等皆年數深達<sup>17)</sup>”하여 癰瘰와 癰疽가 비록 다르나 원인은 동일하며 癰은 肩項에 생기며 瘰는 氣가 응결한 곳에

1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52.  
 1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52.  
 1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52.  
 1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52.  
 1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52.

16)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17.  
 17) 陳言 撰. 文淵閣四庫全書(743)三因極一病證方論.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365.

생기는데 모두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骨瘤 脂瘤 肉瘤 膿瘤 血瘤 石瘤’의 여섯으로 분류하였다.

### 2) 癭

『爾雅』에 ‘癭’이란 용어가 나타나며 『山海經』에서도 ‘癭’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西周시대 이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說文解字』에서는 “癭 頸瘤也<sup>18)</sup>”라고 하였으며, 『釋名·釋疾病』에서는 “嬰也在頸嬰喉也<sup>19)</sup>”라 하여, 목과 목주변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中藏經』상권에 ‘癭瘤’라는 관련된 병명이 처음 등장하며, 『聖濟總錄』 제125권에서는 ‘石癭 泥癭 勞癭 憂癭 氣癭’의 五癭으로 분류하였다.

### 3) 腫

『周禮』에 ‘腫’이란 용어가 최초로 나타나며, 『山海經』에서도 ‘腫’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西周시대 이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說文解字』에서는 “癰也<sup>20)</sup>”라고 하였으며, 『釋名·釋疾病』에서는 “鍾也寒熱氣所鍾聚也<sup>21)</sup>”라고 하였으며, 『論衡·狀雷』에서는 “肉暴長者曰腫<sup>22)</sup>”이라고 하였으며, 『字彙』에서는 “脹也<sup>23)</sup>”라 하였는데, 이는 살결이 갑자기 커지는 것, 굵은 것, 종처럼 모이는 것, 살가죽이 붓는 것(肌肉浮脹)을腫이라고 하였음을 설명한다.

腫과 관련한 병명은 『周禮·天官·冢宰·瘍醫』 중의 ‘腫瘍’이 최초이며, 『黃帝內經』에 ‘腫’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 나타난다.<sup>24)</sup>

18)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84.  
 1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84.  
 20)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1.  
 2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1.  
 2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1.  
 2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811.  
 24) 박중현·신상우의 역대 한의학 문헌에 ‘腫瘍’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설명(박중현, 신상우. 한의학의 중앙에 대한 인식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5). p.867.)

### 4) 瘡

『素問·至真要大論』에 처음 나온다. 『釋名·釋疾病』에서는 “創伐也 伐毀體使傷也<sup>25)</sup>”라 하였고, 『玉篇』에서는 “瘡瘻<sup>26)</sup>”라고 하였으며, 『韻會』에서는 “瘍也<sup>27)</sup>”라 하였으며, 『集韻』에서는 “瘡也<sup>28)</sup>”라 하였는데, 이는 살이나 살갓을 다쳐 생긴 온갖 부스럼을 표현한 것이며 적어도 前漢代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外科啓玄·卷一·明瘡瘍標本論』에서는 “夫瘡瘍者乃瘡之總名也<sup>29)</sup>”라고 하여瘡瘍은瘡의 포괄적인 이름이라고 하였으며 “瘡之一字 所包括者 廣義 雖有癰疽疔癩癰癧疥癬疔毒痘疹等分 其名一止大概而言也<sup>30)</sup>”라고 하여瘡은 온갖 응저와 피부병을 통틀어 이른 말이라고 하였다.

### 5) 瘍

『周禮·天官·冢宰·醫師』 중에 ‘瘍’이 처음 나온다. 『說文解字』에서는 “頭瘡也<sup>31)</sup>”라고 하였으며, 『周禮·天官·冢宰·醫師』에서는 “凡邦之有疾病者 疔瘍者造焉<sup>32)</sup>”이라 하였는데 『注』에서는 “身傷曰瘍<sup>33)</sup>” 『疏』에서는 “云身傷曰瘍者 曲禮云身有傷則浴是也<sup>34)</sup>”라

은 명백한 잘못이다. 瘍醫準繩에서는 無名腫毒의 異名으로써 腫瘍을 설명하였으며, 外科發揮에서는瘡이 아직 굵지 않은 것을 腫瘍이라고 한다는 설명(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13.)이 있다. 또한, 醫宗金鑑 外科心法要訣 중의 癰疽總論治法歌의 한 항목으로 腫瘍主治類方과 腫瘍敷貼類方이 있다.

2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45.  
 2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45.  
 2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45.  
 28)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45.  
 2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80.  
 3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480.  
 3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3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3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하였으며, 『集韻』에서는 “一曰瘡癰也<sup>35)</sup>”라고 하였고, 『廣韻』에서는 “傷也<sup>36)</sup>”라 하였는데, 이로 보아 적어도 西周時代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몸 혹은 머리에 상처입는 것, 부스럼이 끓는 것 등을瘍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風論』에서는 “肌肉憤脹而有瘍<sup>37)</sup>”라고 하였는데,憤은 積의 뜻이고 脹은 脹의 뜻이므로 憤脹은 積滯腫脹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써 몸의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생겨서 쌓여 멍친 병 또는 붓고 썩기는 병을 모두瘍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癰

『山海經』에 ‘癰’이 최초로 나타나며, 「五十二病方」에 ‘癰’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전한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腫也<sup>38)</sup>”라고 하였으며, 『釋名·釋疾病』에서는 “壅也 氣壅否結表而潰也<sup>39)</sup>”라 하였는데<sup>40)</sup>, 등글게 멍쳐서 끓는 것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靈樞·癰疽』에서는 “黃帝曰 夫子言癰疽 何以別之 岐伯曰 營衛稽留於經脈之中 則血泣而不行 不行則衛氣從之而不通 壅遏而不得行 故熱 大熱不止 熱勝則肉腐 肉腐則爲膿 然不能陷骨髓 不爲焦枯 五藏不爲傷 故命曰癰 …… 癰者 其皮上薄以澤 此其候也<sup>41)</sup>”이라 하여 영위가 불통하여 막혀서 열이 나고 열이 그치지 않아 살이 썩으면서 고름이 생기는데 골수에는 미치지 않고 마르지도 않으면서 오장을 상하지 않는 것이 癰이며 그 피부의 윗면은 얇고 윤기가 난다고

하였다.

### 7) 疽

『山海經』에 ‘疽’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五十二病方」에 ‘疽’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전한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久癰也<sup>42)</sup>”라고 하였으며 『正字通』에서는 “癰之深者曰疽 疽深而惡 癰淺而大<sup>43)</sup>”라 하였는데, 오래된 웅으로서 병이 깊고 악화된 것을疽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靈樞·癰疽』에서는 “黃帝曰 何謂疽 岐伯曰 熱氣淳盛 下陷肌膚 筋髓枯 內連五藏 血氣竭 當其癰下 筋骨良肉皆無餘 故命曰疽 …… 疽者 上之皮夭以堅 上如牛領之皮<sup>44)</sup>”라 하여 열기가 드세어 살갓 속으로 파고 들어 힘줄이나 수를 말리며 안으로 오장까지 미치어 혈기를 바짝 말리는데 그 솟아 있던 중기가 꺼져 내려 힘줄이든 뼈든 좋은 살이든 할 것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으므로疽라고 하며 저는 위에 썩어진 껍질이 윤기가 없으면서 단단하고 겉이 소의 목덜미가죽처럼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송나라 이전까지는 단지 꼭지가 없는 저 즉 無頭疽에 대한 기록만이 보이나, 『衛濟寶書』 이후로 有頭疽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며, 현재 疽는 꼭지가 달리고 안 달리고에 따라 크게 有頭疽와 無頭疽로 구분한다.<sup>45)</sup>

### 8) 積

『說文解字』에서는 “聚也<sup>46)</sup>”라고 하였으며 『釋文』에서는 “滯積不通<sup>47)</sup>”이라고 하였으며, 病名으로 사용된 것은 『靈樞·百病始生』이 처음으로 “積之始生 得寒

3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3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3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833.

37)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解釋.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61.

38)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85.

3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85.

40)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85.

41)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28.

4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02.

4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02.

44)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28.

45) 東洋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39.

4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0531.

4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0531.

乃生 厥乃成積也<sup>48)</sup>라 하였으며 『難經·五十五難』에서는 “積者 陰氣也 其始發有常處 其痛不離其部 上下有所終始 左右有所窮處<sup>49)</sup>”이라 하여 積은 寒氣에 의하여 생기며 그 시작하는 것이 일정하며 아픈 곳 역시 그 부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아래로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있으면서 좌우로도 다하는 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적어도 前漢時代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또한 『難經·五十六難』에서는 “肝之積名曰肥氣 …… 心之積 名曰伏梁 …… 脾之積 名曰痞氣 …… 肺之積 名曰息貫 …… 腎之積 名曰贅豚<sup>50)</sup>”이라하여 積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9) 聚

『說文解字』에서는 “會也<sup>51)</sup>”라고 하였으며, 病名으로 사용된 것은 『靈樞·五變』이 처음으로 “皮膚薄而不澤 肉不堅而渾澤 如此 腸胃惡 惡則邪氣留止 積聚乃傷 脾胃之間 寒溫不次 邪氣稍至 穢積留止 大聚乃起<sup>52)</sup>”라 하여 피부가 얇으면서 윤택하지 않고 기육이 견고하지 않으면서 축축한 경우이니 이와 같으면 장위가 병들고 병들면 사기가 머물러 있어서 적취가 비로소 발생하니 장위 사이에 한온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사기가 점차 이르고 축적되면서 머물러 있으면 大聚가 비로소 생긴다라고 하였는데, 적어도 前漢時代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難經·五十五難』에서는 “聚者 陽氣也 其始發無根本 上下無所留止 其痛無常處 謂之聚<sup>53)</sup>”라고 하여 聚는 양기이며 처음 발생할 때부터 근본이 없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머무르지 않아 아픈 곳이 일정

하지 않은 것을 聚라고 한다고 하였다.

### 10) 癖

癖이 病名으로 사용된 것은 『靈樞·水脹』에 처음이며, 적어도 前漢時代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玉篇』에서는 “癖 食不消留肚中也<sup>54)</sup>”라고 하였으며 『一切經音義』에서는 “癖 宿食不消也<sup>55)</sup>”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癖 腹病<sup>56)</sup>”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소화가 안 되며 배가 아픈 것을 의미하였다.

### 11) 癥

『史記·扁鵲倉公傳』에 “以此視病盡見五藏癥結<sup>57)</sup>”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전한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玉篇』에서는 “癥 腹內癥結病也<sup>58)</sup>”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癥 一曰腹病<sup>59)</sup>”이라 하여 뱃속에 덩어리가 뭉친 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金匱要略·癥病脈證并治』에서 의서에서는 처음 나타나며, 『諸病源候論·癥瘕候』에서는 “其病不動者 直名爲癥<sup>60)</sup>” 『聖濟總錄·積聚門』에서는 “牢固推之不移者癥也<sup>61)</sup>”라 하여 단단히 박혀서 밀어도 이동하지 않는 것이 癥이라고 하였다.

### 12) 瘕

『山海經』에 “瘕”가 나타나며, 『史記·倉公傳』에 “巨意診其脈曰螭瘕<sup>62)</sup>”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전한

48)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06.  
 49) 秦越人 撰. 滑壽 注. 難經本義. 文淵閣四庫全書(733).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91.  
 50) 秦越人 撰. 滑壽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難經本義.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491-493.  
 5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633.  
 52)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382.  
 53) 秦越人 撰. 滑壽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難經本義.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91.

5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633.  
 5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633.  
 5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11633.  
 5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63.  
 58)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62.  
 5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62.  
 60) 巢元方 等 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734)·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대성문화사. p.694.  
 61) 宋 徽宗 勅編. 清 程林 刪定. 文淵閣四庫全書(739)·聖濟總錄纂要.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185.  
 6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

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說文解字』에서는 “瘕 女病也<sup>63)</sup>”라 하였으며 『玉篇』에서는 “瘕 腹中病也<sup>64)</sup>”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瘕 腹病<sup>65)</sup>”이라 하였으며 『正字通』에서는 “瘕 瘕瘕 腹中積塊 堅者曰瘕 有物形曰瘕<sup>66)</sup>”라 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瘕는 여성의 배속에 생기는 덩어리를 의미한다. 『素問』과 『靈樞』의 여러 편에 걸쳐서 瘕가 나타나며,

『諸病源候論·瘕病候』에서는 “瘕病者 由寒溫不適 飲食不消 與藏氣相搏 積在腹內 結塊瘕痛 隨氣移動是也 言其虛假不牢 故謂之爲瘕也<sup>67)</sup>”하여 온도를 맞추지 못하며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장기와 엉켜 배속에 쌓이고 맺혀 덩어리져서 아프며 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헛되고 거짓되어 견고하지 않으므로 瘕라 한다고 하였고, 『聖濟總錄·積聚門』에서는 “浮流腹內 按抑有形 謂之瘕<sup>68)</sup>”라 하여 배속에서 떠돌아다니며 눌러보면 형상이 있는 것을 瘕라고 한다고 하였다.

### 13) 瘕

『玉篇』에서는 “瘕 瘕癰也<sup>69)</sup>”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瘕 瘕病也<sup>70)</sup>”라고 하였으며, 瘕이 병명으로 사용된 것은 『外臺秘要』 제20권이 처음으로, 이로 보아 적어도 당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太平聖惠方』 제49권에서는 “瘕者 在腹內近臍左右 各有一條筋脈急痛 大者如臂 次者如指 因氣而成如弦之狀 名曰瘕氣也<sup>71)</sup>”라고 하여 현은 배속에서 배

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33.

6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33.

6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33.

6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33.

6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633.

67) 巢元方 等 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734)·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695.

68) 宋 徽宗 勅編. 清 程林 刪定. 文淵閣四庫全書(739)·聖濟總錄纂要.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186.

6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597.

70)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597.

꼽 가까이 좌우로 각각 하나의 가늘고 긴 근맥이 있어 땅기고 아픈 것으로 큰 것은 팔뚝만 하고 그 보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한데 기로 인하여 형성되고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한 것을 瘕氣라 이름한다고 하였고, 『醫宗金鑑』에서는 “婦人臍之兩旁 有筋突起疼痛 大者如臂 小者如指 狀類弓弦者曰瘕 因風冷客於胞中而然<sup>72)</sup>”이라 하여 風冷한 기운이 자궁에 침범해서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

### 14) 瘕

『衛濟寶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용저를 다섯



<「衛濟寶書」중의 瘕>

으로 구별한 “瘕 瘕 瘕 瘕” 중의 하나로써 언급되는데 “瘕疾初發者 却無頭緒 只是肉熱痛 過一七或二七 忽然紫赤微腫漸不疼痛 迤邐軟熱紫赤色<sup>73)</sup>”라고 하여 瘕는 처음 나타날 때 오히려 두서가 없이 단지 살

71) 東洋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39.

72) 吳謙 等奉勅纂. 文淵閣四庫全書(781)·御纂醫宗金鑑.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274.

73) 東軒居士 撰. 文淵閣四庫全書(741)·衛濟寶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817.

가죽이 열리며 아프고 7일에서 14일이 지나면 갑자기 검붉은 색으로 가볍게 부으면서 점차 동통이 없어지고 이어서 부드럽게 변하면서 검붉은 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보아 적어도 宋代以前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雜病篇』에서는 “未潰色紫黑 堅硬已潰 深陷如巖 爲癰, 男則多發於腹, 女則多發於乳也<sup>74)</sup>”라고 하여 터지지 않으면서 검붉어지면서 단단하거나 헤진 다음에 꼭 꺼져 들어가 압초같이 되는 것이 암이며 남자는 배에 많이 생기고 여자는 젖에 많이 생긴다고 하였다. 惡性腫瘍을 癰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은 20C초 이후이다.

### III. 結 論

질병인식의 범주를 주제로 漢代까지의 덩어리·혹·종기에 관한 문자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덩어리·혹·종기 등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적어도 西周時代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前漢時代부터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2. 漢代까지의 종기 혹 덩어리와 관련한 질병인식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중요 문자는 ‘腫 瘍 瘤 癭 瘡 癰 疽 積 聚 癰 癥 瘕’ 등이며, 南北朝時代에 나타나기 시작한 ‘疔’과 宋代에 처음 나타난 ‘瘤’ 등을 중요 문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癰은 갑골문에 최초로 나타나며, 몸이 붓거나 혹은 몸에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4. 癭은 『爾雅』에 최초로 나타나며, 목과 목 주변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5. 腫은 『周禮』에 최초로 나타나며, 살결이 갑자기 커지는 것 끓는 것 종처럼 모이는 것 살가죽이 붓는 것(肌肉浮脹) 등에 대한 인식이다.
6. 瘡은 『素問至真要大論』에 최초로 나타나며, 살이나 살갓을 다쳐 생긴 온갖 부스럼에 대한 인식이며

온갖 온저와 피부병을 통틀어 이른 말이다.

7. 瘍은 『周禮·天官·冢宰·醫師』중에 최초로 나타나며, 몸 혹은 머리에 상처 입는 것, 부스럼이 끓는 것, 몸의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생겨서 쌓여 뭉친 병 또는 붓고 켜기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8. 癰은 『山海經』에 최초로 나타나며, 등글게 뭉쳐서 끓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9. 疽는 『山海經』에 최초로 나타나며, 오래된 응으로서 병이 깊고 악화된 것에 대한 인식이다.
10. 積은 『靈樞·百病始生』에 최초로 나타나며, 그 시작하는 것이 일정하며 아픈 곳 역시 그 부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아래로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있으면서 좌우로도 다하는 곳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11. 聚는 『靈樞·五變』에 최초로 나타나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무르지 않아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이다.
12. 癰은 『靈樞·水脹』에 최초로 나타나며,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으나, 唐代以後에는 瘡과 같이 사용되면서 양 옆구리에 있으면서 때때로 치우치며 아픈 것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13. 癥은 『史記·扁鵲倉公傳』에 최초로 나타나며, 배속에 덩어리가 뭉친 병에 대한 인식에서, 隨代以後에는 단단히 박혀서 밀어도 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14. 癧는 『山海經』에 최초로 나타나며, 여성의 배속에 생기는 덩어리에 대한 인식에서, 隨代以後에는 배속에 쌓이고 맺혀 덩어리져서 아프며 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헛되고 거짓되어 견고하지 않으며 눌러보면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15. 疔은 『外臺秘要』에 최초로 나타나며, 배속에서 배꼽 가까이 좌우로 각각 하나의 가늘고 긴 근맥이 있어 땅기고 아픈 것으로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한 것에 대한 인식이다.
16. 瘤은 『衛濟寶書』에 최초로 나타나며, 적어도 宋代以前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惡性腫瘍을 瘤으로 표현한 것은 20C초부터다.
17. 腫瘍에 관한 漢代까지의 주요 인식은 혹에 대한 ‘瘤’란 인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몸 겉으로 드러난

74)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534.

덩어리·혹·중기 등에 대한 ‘癭 腫 瘡 瘍 癰 疽’ 등에 대한 인식과 몸 안으로 나타난 덩어리·혹 등에 대한 ‘積 聚 癥 瘕 瘕’ 등에 대한 인식이 시각과 촉각 및 증상관찰 등에 의하여 특정한 질병인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앞으로 시대별 덩어리·혹·중기 등의 병명에 대한 병리적 고찰과 질병분류 등에 대한 연구 및 현대의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중앙전문의의 고찰이 이루어져 한의학 중앙연구의 기반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논문>

1. 박종현, 신상우. 한의학의 종양에 대한 인식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5). p.867.

#### <단행본>

1.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解釋.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61.
2. 王冰 注. 文淵閣四庫全書(733)·靈樞經. 서울. 대성문화사. p.382, 406, 417, 428.
3. 秦月人 撰. 滑壽 注. 難經本義. 文淵閣四庫全書(733). 서울. 대성문화사. p.491, 492, 493.
4. 巢元方 等 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734)·巢氏諸病源候總論. 서울. 대성문화사. p.694, 695.
5. 宋 徽宗 勅編. 清 程林 刪定. 文淵閣四庫全書(739)·聖濟總錄纂要. 서울. 대성문화사. p.185, 186.
6. 東軒居士 撰. 衛濟寶書. 文淵閣四庫全書(741). 서울. 대성문화사. p.817.
7. 陳言 撰. 三因極一病證方論. 文淵閣四庫全書(743). 서울. 대성문화사. p.365.
8. 吳謙 等奉勅纂. 文淵閣四庫全書(781)·御纂醫宗金鑑. 서울. 대성문화사. p.274.
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534.

10. 池載熙 李俊寧 解譯. 周禮. 서울. 자유문고. 2002. p.66, 70.
1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普及本).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9597, 9602, 9633, 9645, 9652, 9662, 9663, 9684, 9685, 9833, 10531, 11633, 11811, 11812.
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39.
1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13, 480.
1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39.
15. 최승훈 저. 동의종양학. 서울. 행림출판. 1993. p.19.
16. 문구, 정병학, 김병주 편저. 암 동서의 결합 치료(1).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9. p.3.
17.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차웅석, 김홍균, 이병욱, 김용진, 박현국, 신영일, 김훈 외 6인. 강좌중국의학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45.

